이 봄으로 다시 한 걸음

현불논단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연말과 연초가 어느새 지나가고, 이제 한 계절이 바뀌려고 한다. 겨울의 시작에 그다지 춥지 않은 날씨로 여유를 부리며 시작한 지난 계절은, 갑작스레 사람에 의한 추위가 밀어닥치며 모든 이들이 마음을 떨며 조심스레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이제 그토록 추웠고 언제 지나가나 걱정 가득했던 이 겨울의 끝자락에 이르러 봄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새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을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영화가 있다. 사계절을 보내고 다시금 맞이하는 '이 봄'은 지난 '그 봄'이 아니다. 매년 이맘때면 당연히 봄이 찾아왔으나, 우리가 살아온 여러 봄들 중에 단 한 번도 같은 봄은 없었다.

지난 연말 늦은 저녁에 들은 한 소식은 우리의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워졌고, 그 아침을 미처 느끼기도 전에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소중한 가족과 인연들을 떠나보내며 이 하루의 삶이 더욱 간절하게 와닿았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많은 일과 많은 어려움이 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것들을 정리하기조차 버겁다.

그래도 시간은 다시금 흘러 우리의 앞에 새 계절을 가져오려 한다. 이 계절은 그 계절과 같이 보내서는 안 된다. 나의 시간이고, 나의 하루이고, 나의 삶이다. 그리고 이 봄을 나의 봄으로 하여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겨울이 지나면 오는 봄이라도
새롭게 다가온 '이 봄'임 알고
서원 담아 자기자리로 가져오자

'진일보(進一步)'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다. 일반적으로 무언가가 발전했을 때 쓰는 표현이지만, 본래는 자신이 배우고 수행하는 길 위에서 자신의 한 걸음을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우리의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아 수행을 한다. 그를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무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자신 안의 불성을 현현(顯現)하여 그 자신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윤회의 굴레 속에서 연기적 삶을 살아간다. 육도윤회라는 여섯 갈림길의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 연기라는 원인과 결과의 이어짐이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당연한 하루이고 당연한 계절이라 여기며 이번에도 이 봄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업(業)에 의해 그저 그렇게 맞이한 시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봄이 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서원대로 봄을 맞이한다면 이것은 법(法)에 의해 시절인연을 이끌고 와 자신의 봄을 개현(開顯)한 것이 된다.

임제 스님의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의 가르침과 같이, "자신이 머무는 자리의 주인이 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참된 곳"이다. 겨울이 지나면 당연히 찾아오는 봄이라도, 그것이 지난 '그 봄'이 아닌 새롭게 다가온 '이 봄'이라는 것을 알고, 서원을 담아 자신이 머무는 자리로 이끌어 온다면, 이번 봄은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계절이며 그 어느 때보다 환희로운 시작의 봄이 될 것이다.

봄에 얼었던 땅이 녹아 우리의 발길을 이끌고, 봄꽃이 곳곳에 피어나 우리의 눈길을 잡고, 봄의 햇살이 우리의 온기를 북돋아 따스함을 주며, 봄의 내음이 이제 우리에게 봄을 알릴 것이다. 이 봄으로 한 걸음 내디뎌 그 자리의 우리를 발견하고, 소중한 인연들과 이 시절을 함께 하며 행복한 웃음을 짓는 봄날의 완벽한 하루를 보내자.

불안중독시대와 중도 명상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지금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격랑의 파고가 지구촌 곳곳에서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지구별의 많은 사람은 불안과 걱정의 늪에 빠져 있다. 불안은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본능이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어떤 대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훨씬 높고, 긍정적 소문보다 부정적 소문을 믿는 경우가 많다.

현대 문명사회는 '위험사회'로 지칭되고 있다. 현대인의 삶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문명의 화산 위에서 사는 모습으로 비유된다. 그만큼 오늘을 같이 사는 사람들은 불안의 늪에서 사는 존재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참으로 안타깝고 황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불안과 부정적 사고를 돈벌이의 상품으로 팔고 있다. 다양한 대중 매체가 등장하면서 시청률과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과 부정적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 거짓 뉴스와 미움과 증오를 유발하는 폭력적 언어를 통해 장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집단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불안은 인간 존재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한 본능으로 없애 수도 없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 한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불안의

대중매체, 불안 조장해 돈벌이
부정적 사고들로 사회 잠식 중
중도적 사고와 사유로 살아가야

파고 속에서 이를 극복한 사람의 행복도가 낙관적이고 불안이 적은 사람보다 높다는 통계도 있다.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보다 격랑의 바다를 헤쳐 나가는 선장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니라.

새삼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인 사성제의 첫 명제인 고성제(苦聖諦)가 떠오른다. 고성제는 인간 존재의 한계성(Dukka)을 밝히는 것이다. 붓다는 인간이 고해의 격랑 속에서 침몰되지 말고 저 '멋진 섬'에 도착하는 지혜를 가르쳤다. 불안과 걱정을 치유하는 책이 서구에서 많이 출판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번역 출간되어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그 치유 방법이 익숙하다. 바로 팔정도의 정견(正見), 정념(正念), 정정(正定), 정어(正語)의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서구의 체계화된 인문사회과학의 이론과 다양한 임상사례와 접목하여 팔정도의 치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연기법을 체감하고 중도의 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팔정도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바로 고정된 실체를 부인하는 연기법의 사유이다. 한계상황의 존재인 인간이 불안과잉시대에서 불안에 중독되지 않고 불안을 안으면서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중도의 길이다. 요즘 '선명상'이 강조되고 있다. 필자는 선명상의 핵심이 바로 '중도 명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불교는 긴 여사 속에서 불안 중독 사회를 치유하는 많은 광맥을 가지고 있다. 이 광맥을 채굴하여 실용적이고 접근하기 쉽게 가공하여 불안 중독을 치유하는 건강기기가 절실하다. 이를 어쩌랴. 어느 시대보다 붓다의 지혜가 절실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

社 說

무비 스님 '법보장' 보급 불사에 부쳐

'한국불교 대강백' 여천 무비 대종사의 모든 저작과 강의 등을 USB(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아 보급하는 디지털 법공양 불사가 진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무비 스님이 평생 동안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쓴 저서와 강의 등을 모두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USB에 담아 대중들에게 무료로 전하는 법공양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법의 보배창고'라는 의미를 담은 '법보장(法寶藏)'이라고 명명된 USB에는 법해(法海)에서 대강백 무비 스님이 길어 올린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들과 스님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겼다.

무비 스님의 가르침이 담긴 '법보장 USB'는 4월 3~6일 열리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1만개가 법공양된다. 이후에는 다음카페 '염화실'의 법공양란에 주소를 기입하면 누구에게나 '법보장 USB'를 전해줄 것이라고 한다.

무비 스님은 "위대한 부처님 법에는 저작권이 없다"며 "'법보장' USB를 통해 위대한 부처님 법을 모든 중생들이 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초발심자경문〉 '자경문' 중에는 '인생난득(人生難得)이요, 불법난봉(佛法難逢)이라'는 구절이 있다. '사람 몸 받아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라는 이 경구는 부처님 법을 만나기 위해서는 희유한 인연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대강백이 자신의 보배창고를 활짝 열었다. 공부인이라면 창고의 한 켠이라도 보고 와야 하지 않겠는가.

진관사 수륙재, 유네스코 등재 기대한다

지난 2024년 10월 19일 서울 진관사 국행수륙재 회향식이 봉행됐다. 이날 회향식에서 진관사는 국행수륙재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해 불교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임돈희 진관사 수륙재 세계무형유산등재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동국대 석좌교수)은 진관사 대중을 대표해 발표한 선언문에서 "지구촌화하는 세상에서 진관사 국행수륙대재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쟁과 재해로 고통 받고 상처받는 인류를 위해 축제를 행하고자 한다. 이에 진관사 수륙대재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해 위의 임무를 완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언 이후 4개월이 지난 2월 27일 진관사는 '수륙재와 인류무형유산의 공동체성'을 주제로 '제1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의례에 담긴 공동체적 가치와 특징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의례를 통해 자비심과 이타심을 새기고 실천하며 그 마음이 자신과 중생에게 더 큰 공덕으로 확산해 지혜롭고 자비로운 문명을 건설해나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구미래)는 주장은 파편화되고 개인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수륙재라는 의식이 왜 필요한지를 인식하게 한다.

국가무형유산인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선왕선후의 명복과 백성들의 안녕을 기원한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진관사 국행수륙재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3월 5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3월 5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3월 5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